

풍력발전, 유럽과 협력체제 본격화

KOTRA, 부품소재 유럽상담회 개최 ... 공동 연구개발·투자·마케팅 추진

정부가 유럽의 글로벌 기업들과 본격적인 풍력산업 협력에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국내 풍력분야 부품소재 생산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6월15일부터 2일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글로벌 파트너십 EU 2010>을 개최했다.

지경부가 주최하고 KOTRA,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주관해 함부르크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했으며 프랑스 아레바, 덴마크 베스타, 독일 지멘스 등 유럽 12개국의 글로벌 풍력기업 29사와 현대중공업, 동국 S&C, 두산메카텍, 포스코아 등 국내 부품소재기업 38사가 참가했다.

국내기업들은 풍력산업이 발전한 유럽의 글로벌 기업들과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제품개발 초기단계부터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공동 연구개발(R&D), 공동 프로젝트, 투자 유치, 제품 상용화, 마케팅, 인력 채용 등까지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76.2GW의 풍력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등 세계 풍력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있으나 최근 아시아 시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유럽과 국내기업의 전략적 제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09년에는 풍력발전 신규 설치용량 중 아시아가 40.4%를 차지했고 북미와(28.4%), 유럽(27.3%)이 뒤를 이었다.

KOTRA 관계자는 “국내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부족한 풍력 및 신기술분야에 대한 글로벌 제휴가 확대돼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6/15>